

학술논문 :

양승찬. (1998). 제 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연계성. 한국언론학보. 43(2). 109-141.

요약 :

정치사안에 관한 여론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 발표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결과에서는 정확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사람들이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면서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매스미디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데이비슨의 '제 3자 효과 가설' 과 노엘레-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 은 모두 정치사안과 관련된 실제의 여론 상황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태도 등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인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인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지각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두 이론적 접근의 접목을 시도해보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데이비슨의 제3자 효과 가설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편향된 지각을 개인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즉 매스미디어의 메시지가 개인 자신 또는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제3자인 타인에게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제3자 효과 지각 으로 설명한다.

한편 노엘레-노이만이 주창한 침묵의 나선 이론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분위기의 지각이 사람들의 공개적인 의견표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의 견해가 여론상황에서 의견분위기로 나타나는 다수 견해와 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반해 불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고립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 침묵의 나선 이론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렇듯 제 3자 효과는 개인이 본인 스스로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는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을, 침묵의 나선 이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지각을 각각 다루면서 이러한 지각이 정치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연구전통의 접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목의 가능성은 많은 부분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제안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고,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제시하거나 실제적으로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두 편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다양한 정치적인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신문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제 3자효과 지각과 그 지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이 연구는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국의 일반 유권자가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 3자효과 지각의 정도가 비교 대상의 타인이 "지역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사회적 거리가 달라짐에 따

라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알아본다.

언론 여론조사 보도의 경우에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견해쪽으로 영향을 받는 측면을 고려한다. 또한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개인이 매스미디어나 다른 채널들을 통해 나름대로 지각하는 분위기를 주로 측정한 것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에 노출된 사람들의 여론분위기에 대한 지각을 이률적으로 통일한 우 그 다음 제 3자 효과의 지각에서 파생되는 결과에 주목한다. 만일 다수편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타인들이 자신과 같은 의견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들은 제 3자 효과 지각으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여론분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일치된 여론분위기를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 주장에 근거하여, 더욱 일치된 여론분위기를 지각하게 된 사람들이(제3자 효과 지각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의견표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소수편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여론조사 보도로 인해 타인들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는 다수의 편을 향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제 3자 효과 지각으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불일치한 여론분위기를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연구는 추측한다. 이와 같이 더욱 불일치한 여론분위기를 지각한 사람들(제3자 효과 지각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할 것이라고 역시 침묵의 나선 이론에 근거하여 마지막 단계를 추측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가 타인들이 다수의 편으로 따라가도록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승자편승 측면의 제3자 효과 지각이 정치사안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에 따라 공개적인 의견표명 행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연계성을 보는 데서 상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인 여론조사 보도가 다수의 방향으로 미치는 승자편승 측면의 영향력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은, 여론조사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의 방향으로 보도 자체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미칠수 있는 영향력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보는 지각적 편향을 의미한다. 한편 종속변인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은 한 개인이 가상의 공론장에서 대부분 모르는 타인들 앞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언어로써 표현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한다.

채택한 이론과의 연결성

우리가 채택한 현상은 'Formation of Public Opinion (여론의 형성(과정))' 이다. 어떻게 주된 의견이 형성되고 드러나는지 와 이 개념과 관련된 이론들은 '제 3자효과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 과 '아젠다 세팅' 이있다.

제3자 효과 이론은 '자신은 매스미디어에 영향을 별로 받지않고 자신과 먼 제3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론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두가지이상의 의견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때는 의견표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의견표출에 소극적이게 되어서 결국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채택된다'는 이론이다.

아젠다 세팅 은 '미디어가 어떤 특정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보도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대중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인 것으로 착각하고 집중하여 여타 다른 이슈는 무시된다'는 이론이다.

그중 '제 3자 효과 이론' 과 '침묵의 나선 이론' 은 여론의 형성과 그 과정이라는 공통점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제 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이론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 할수도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두 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